

國際高麗学会

會報

Vol. 1

1 9 9 1 . 1 2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ISKS)

創刊号

國際高麗学会本部事務局

◇◇◇◇ 목 차 ◇◇◇◇

인사의 말	2
발간사	3
각부회위원장의 경력과 활동계획	4
미주본부창립	10
아시아제 2분회의 연구활동	12
북경 서화세미나	15
국제고려의학학술회의	17
KOREA학소장학자국제학술토론회	20
· 언어부회	23
· 문학부회	24
· 역사부회	25
· 철학·종교부회	26
북경 제 1회운영위원회의	28
사무국활동일지	29
알림	32
편집후기	33
조직 및 임원	34

인사의 말



국제고려학회
회장 최 응 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분들의 관심과 지지속에 1990년 8월 5일 일본 오사카에서 있었던 제 3차조선학국제학술토론회를 계기로 성립된 국제고려학회는 학회사무국성원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협력으로 1년사이에 6개국, 600여명의 회원을 가진 비교적 큰 규모의 학회로 되었습니다. 또한 이 1년사이에 국제고려학회는 보다 활발해지는 KOREA학 연구의 현실에 비추어 연속적으로 세차례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991년 5월에 있었던 <북경서화세미나 및 작품전시회>는 국제고려학회가 주최한 첫 행사였습니다. 이는 분단 46년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남북서화가들의 상봉으로서, 앞으로 남북 KOREA서화가들의 교류를 위한 뜻깊은 첫시작이었습니다.

또 국제고려학회와 중국 길림성사회과학원의 공동주최로 1991년 7월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에 걸쳐 길림성 연길시에서 개최된 <제 1차 KOREA학소장학자국제학술토론회>에는 중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일본, 미국, 소련, 독일, 터어키, 대만 등 9개 나라와 지역에서 40대이하 약 300여명의 KOREA학소장학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국제학술토론회는 KOREA학 연구분야에서 처음있는 젊은 학자들의 모임으로 세계 각국의 젊은 KOREA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학술교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되었고, 또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젊은 학자들사이의 상호리해와 친선을 강화함으로써 KOREA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소로도 되었습니다.

또 금년 7월25일부터 28일까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국제고려학회 의료부회와 연변의학원의 공동주최로 <국제고려의학학술회의>도 개최했습니다.

이제 뜻깊던 91년이 가야흐로 다 지나가고 보람찬 1992년이 다가올 즈음에 우리는 지나간 한해의 경험과 성과를 총화하여 국제고려학회를 더 더욱 훌륭하게 운영해나가며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KOREA학연구에 종사하는 회원들사이의 학술교류와 학문연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하여 국제고려학회 회보를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희망컨데 이 회보가 KOREA문화를 보다 널리 세계각국에 소개하고 KOREA학의 보다 활발한 연구와 발전을 촉진하는 훌륭한 간행물로 되도록 새해에도 계속해서 회원 여러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12월26일



발 간 사

국제고려학회본부사무국
국 장 송 남 선

본 국제고려학회가 KOREA학의 보다 활발한 연구와 친목이라는 취지를 가지고 발족된 지도 두해째가 됩니다. 그간 사무국장으로서 여러나라의 회원들로부터 나오는 적극적인 제안과 사무국성원들의 열과 성의에 힘입어 일하여 왔다는 것이 저의 솔직한 감상입니다.

지난 여름에 중국 연변에서 국제고려학회가 주최한 KOREA학소장학자국제 학술토론회와 국제고려의학술회의는 갖 태어난 학회로서는 너무나 힘든일이었으나 여러 회원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에 의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저는 이 지면을 빌어 회의참가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국제고려학회의 회원과 사무국 성원들이 열망하던 국제고려학회 <회보>를 처음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보>의 목적은 여러나라에 계시는 회원여러분의 소식, 의견, 그리고 연구성과를 서로 알리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고에 의하여 그 지면이 채워지고 <회보>의 양과 질이 더불어 성숙하여 국제고려학회의 발전에 기여할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국제고려학회사무국은 래년 8월 중국 북경에서 열리게 될 제 2차총회를 전망하면서 각 지역에서의 연구활동의 활성화, 그리고 그에 기초한 학회지 발간을 위해 열심히 일해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회원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원을 마음속으로부터 바라는 바입니다.

1991년12월26일

각 부회위원장들의 경력과 활동계획

●언어부회 : 김진우교수 (미국 UNIV OF ILLINOIS)

1. 경력

1958	서울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1958~61	한국 공군사관학교 영어교관
1964	UNIV OF CALIFORNIA, LOS ANGELES 언어학석사
1966	동대학 언어학 박사
1966~67	MIT POSTDOCTORAL FELLOW
1967~69	UNIV OF ILLINOIS 언어학과 조교수
1969~72	동대학 언어학과 부교수
1972~현재	동대학 언어학과 교수
1972~73, 86~87	UNIV OF HAWAII 언어학과 초빙교수
1979~86	UNIV OF ILLINOIS 언어학과 과장
1983~84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초빙교수
현재	UNIV OF ILLINOIS 언어학과 및 영어교육학과 교수 겸 동양어문학과 과장

2. 사업계획 구상

- (1) 통일외래어표기법과 로마자화법의 제정과 실시
 현재 한국문교부식, 북조선식, Yale식, McCune-heischauer 식등 여러가지에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쓰고 있다. 이의 통일이 시급하다.
- (2) 남북한언어의 통일
 해방후 남북한의 고립과 독자적 언어정책으로 인해 철자법에서 화법에 이르기까지 남북한언어의 분화가 증가되고 있다. 이를 지양하고 통일된 체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 (3)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과서 제정
 KOREA의 국제화와 함께 KOREAN도 국제화되어가고 있다. 미국, 유럽, 일본, 오스트렐리아 등지에서 한국어강좌가 속출하고 있는데 쓸만한 교재가 없다.
- (4) 학술용어의 통일
 각 전문분야의 학술용어를 정리, 통일해야 한다.
- (5) <국어문법대계>의 집필
 이러한 대작은 한 개인이 할 수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 부분을 맡아서 써야 할 것이다.

●문학부회 : 김도권교수 (중국 중앙민족대학)

1. 경력

- 1935 조선 함경북도 종성군에서 출생
1957 연변대학 조선언어 문학부 졸업. 그뒤 연변제 2고중 문학교원
1973 북경시 중앙민족대학에 전근. 조선현대문학시기 작가와 작품 및 중국 조선민족의 작가와 작품을 중심으로 논문, 평론 발표
현재 중앙민족대학 부교수, 일본 岐阜教育大学 전임교수

2. 사업계획 구상

조선반도의 분단상황은 오늘도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한 연구가들의 접촉과 의견교환은 <체제, 리념>을 초월하여 여러 면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990년 8월에는 일본 오사카에서 남북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 지역의 학자, 연구자들이 자리를 같이 하였고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 남북조선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날로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진지한 접촉과 대화가 더 한층 기대되기는 합니다만 우리 문학연구가들에게 있어선 이제는 실제적인 공동과제들을 내어놓고 함께 연구, 토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이에 금후 2년간의 문학분과활동계획을 다음과 같이 구상해봅니다.

◎활동목적

국제적범위에서의 코리아문학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연구가 상호간의 연계와 합작을 강화한다.

◎활동계획

1) 국제고려학회문학부회 운영회의 설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한국, 중국, 일본, 소련, 구미등 지역의 대표들로 이루어지는 <운영회>를 1991년안으로 준비하여 1992년 제 4차조선학국제학술토론회의 기간중, 문학부회위원들 모임에서 토론, 통과함.

2) <코리아문학논문집>의 편집, 출판 (년간)

학회에 보내오는 원고들과 기타 본국, 재외 문학 출판물에 발표되는 글중에서 선제. 1992년에 <창간호>를 냄.

3) 국제고려학회 문학심포지움의 개최 (20명좌우의 연구가들로 년 1차)

· 제 1차심포지움 (1992년 12월경 예정) 의 과제

<재외민족문학의 현황과 금후 과제>

· 구체내용

가) 각 나라, 지역별로 우리 민족의 문학은 어떻게 실존, 발전되고 있는가?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보여진 특징들은?

앞으로의 전망과 그에 대처할 자세는?

나) 재외문학은 본국문학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동질성과 관련성은? 금후의 추향은?

4) 국제고려학회 문학학술토론회 개최(4,5년간에 1차)

· 제 1차학술토론회 (1993년 8월경 예정) 의제

- <조선통일의 기운이 높아가는 전환시기, 우리민족 문예학의 각분야
(문학론, 문학사, 문학평론)에서의 새로운 연구과제> (가제)
5. 문학연구자들간의 상호접촉, 방문을 위한 정상적인 연계사업.

●역사부회 : 박창욱교수 (중국 연변대학)

1.경력

1928.9.18 출생
1956 연변대학역사학부 졸업
1962 연변대학역사학부 강사
1963 연변대학중국사강좌 실장
1978 연변대학역사학부 부학부장
1983 연변대학민족연구소 민족사연구실 실장, 교수

●경제부회 : 다끼자와 히데끼교수 (일본 甲南大学)

1.경력

1943.4.3 日本 富山県에서 출생
1966 東京大学 경제학부 졸업
1971 동대학 대학원경제학연구과 박사과정단위취득퇴학
1985 경제학박사학위 취득 (동경대학)
1970.4.1 甲南大学 助手. 이후 전임강사, 조교수를 거쳐서
1979.4.1 甲南大学 경제학부교수
1991.4.1 大阪경제법과대학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2.사업계획 구상

종래 한국의 사회와 경제에 관해서 조금 연구를 해온 것에 불과한 나에게 있어서 경제부회의 회장직은 너무나 막중한 중책이다. 그러나 거꾸로 이것을 계기로 나자신의 연구시야를 한반도의 남북은 물론, 세계로 뻗어간 한민족(Korean in the world)으로 넓히고 국제고려학회를 명실공히 국제적인 규모와 내용을 갖춘 학회로 발전시키는데 일조하고 싶다.

한민족에 속하지 않는 일본인으로서 연구대상에 접근하는 약점을 역으로 살려서 사상과 정치적 입장의 상이를 초월한 참과학으로서의 KOREA 학을 추구하는 경제부회로서 확립하고 싶다.

●정치·법률부회 : 길영환교수 (미국 아이오와주립대학)

1.경력

1932.10.13 KOREA 서울에서 출생
1959 미국 GRINNELL COLLEGE의 문과대학에서 정치경제학 전공

졸업

1963	NEW YORK UNIVERSITY에서 철학박사학위 취득
1963~67	JUNIATA COLLEGE의 정치학 조교수
1967~74	동대학 부교수
1963~74	동대학 정치학과 과장
1974~현재	IOWA STATE대학교수, 국제관계론, 비교정치론, 국제기구론담당
1974~81	북미한인정치학회 회장역임
1986	IOWA정치학자협의회 의장역임

2. 사업계획 구상

우선 정치·법률부회위원장직을 위촉해 주신 회장단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부회활동과 발전을 위하여 사무국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학회회원들의 지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부회 임무와 연구과제를 구분하여 본인의 구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첫째, 정치·법률부회는 앞으로 회원들 사이에 학술연구에 관한 정보의 교환, 교류 그리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촉진제와 교량역할을 하는데 주목적을 둔다. 따라서 본 부회는 앞으로 개최되는 여러가지 KOREA 학의 국제회의에 있어서 정치·법률부분에 관한 프로그램작성과 발표자선출에 관하여 본부사무국과 회장단에 자문을 제시한다.

둘째, 본 부회는 공동연구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한다. 1991년대 냉전후기시대 (POST-COLD WAR ERA)에 있어서 급변하는 세계정치구조와 동북아시아의 세력균형을 고려하여 앞으로 한반도 평화유지와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학구적인 자세와 연구활동이 필요한가? 이 문제의 규명에 관하여 본인은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를 제시하고 싶으며 이에 관한 회원들의 반응과 제의를 직접 또는 본부사무국을 통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이론과 유형들의 정리
2. 한반도 전쟁영지를 위한 군비통제와 상호신뢰구축을 위한 연구
3. 한반도 비핵화에 부수되는 문제분석 구체적조치와 방안에 관한 연구
4. 남북한관계정상화를 위한 필요한 조치들의 분석
5. 기존통일방안들의 비교분석과 절충안의 모색
6. 통일코리아헌법의 미래상

● 사회부회 : 김동훈교수 (日本 龍谷大学)

1. 경력

1934.9.7	출생
1965.4	京都大学大学院 박사과정에 진학
1974.5	동대학법학박사학위 취득
1977.9~82.3	大阪경제법과대학 교수

1982.4~현재 龍谷大学법학부 교수
 日本国際法学会 評議員
 國際人權法学会 理事
 전공분야-국제법 (특히 국제인권보장법)

● 교육부회 : 최상목교수 (중국 중앙교육연구소)

1. 경력

1938 중국 길림성화룡현에서 출생
 1957 연변 제 1고중을 졸업
 1963 연변대학을 졸업, 2년간 조선문학을 전공, 3년간 러시아어를 전공
 1963~78 길림시 1중, 설안현 1중, 팔가자림업중학에서 교편을 잡음, 교도주임, 부교장 등 직무를 맡음
 1981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생원을 졸업, 현대철학을 전공, 철학석사학위를 획득
 1981~현재 중앙교육연구소 교육기본이론연구실에서 사업, 부주임, 부연구원

2. 사업계획 구상

저는 취임기간에 국제고려학회 교육부회 여러학자선생님들과 손을 잡고 또 그들의 적극성과 지혜에 의거하여 아래 두개의 문제상에서 기본적인 해답을 얻으려 합니다.

첫째, 우리민족의 3세, 4세후대들의 미래의 행복한 생활을 목적으로 하고 우리민족의 우수한 의식, 열의, 품덕, 전통, 풍습등의 계승과 발전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족교육을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가?

둘째, 우리민족의 종국적인 우애단결과 화평통일을 위하여 우리 민족학교는 어떤 일들을 하여야 하는가?

● 의료부회 : 이형모교수 (미국 Medical College of Virginia)

1. 경력

1926.10.27 KOREA 단천에서 출생
 1949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석사학위 받음
 1953~63 Medical College of Virginia에서 연구
 1963~70 등대학 조교, 부교수로 근무
 1970~현재 등대학 외과학 교수
 1973~현재 등대학 해부이식학과 교수
 1984~85 미국 이식외과학회 회장
 재미 한인외과학회 회장

● 과학·기술부회 : 장년석교수 (日本 大阪電氣通信大学)

1. 경력

- 1927.4.15 KOREA 경상남도 울산시에서 출생
현재 日本 大阪寝屋川市 거주
1953.3 立命館大学 리공전기공학과 졸업
1958.3 大阪大学大学院 통신공학전공 (修士) 수료
1961.3 大阪大学大学院 통신공학전공 (博士) 수료
1962.4~64.3 일본학술진흥회 장려연구원
1966.8 大阪大学 助手
1981.4~현재 大阪電氣通信大学 교수
1985.3~현재 大阪電氣通信大学 위생통신연구시설장

2. 사업계획 구상

인류사회의 역사에서 과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생활과 문화의 향상에 깊이 관련되고 있다. 우리들의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데 있어서도 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은 불가피하며 뿔레아 뿔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과학기술을 전진시키며 지구환경의 보존을 전제로 하면서도 이를 한층 심화시키는 것은 인류의 항구적평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마땅히 과학자가 짊어져야 할 사명이기도 하다.

국제고려학회 과학기술부회는 우에서 지적인 리념을 부연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생각이다. 구체적으로는 부회회원을 증가시키는 조치와 활동을 할 것이며 세계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동족 과학자를 발굴하는 일들을 통하여 조직을 강화한다.

두번째로는 부회의 독자적인 립장에서 국제적인 과학기술학회를 개최하는 문제를 명확히 하여 구체화하는 방도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는 정기적인 ISKS과학기술부회통신을 회원들에게 전하며 1년에 한번정도 각 지역별로 연구회를 열고 이것이 동과학자들이 전문을 통하여 친목과 나라의 장래를 이야기할수 있는 마당이 되었으면 한다.

끝으로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의 명칭이 의미하는 바와같이 통일된 나라, 남북과 해외에 있는 동족이 나라의 과학기술과 Korean Studies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할수 있는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미주본부 창립

작년 11월27일부터 12월19일까지 본부사무국의 양관수사무차장과 김철웅아시아제 2분회총무가 미국의 중심도시와 대학을 방문하여 현봉학교수를 비롯하여 많은 선생님들과 국제고려학회의 조직 및 미주본부의 창립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면서 협의했다.

그후 미주본부를 창립하기 위한 작업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으며 현봉학교수, 길영환교수, 문정인교수, 김문옥교수, 백원광본부사무차장등 여러 선생님들이 성실과 열정을 쏟아서 추진해 온 결과 다음과 같이 창립총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 일 시 : 1991년 7월13일 PM 6:00
- 장 소 : KOREA HOUSE (NEW JERSEY 州의 LITTLE PERRY 소재)
- 참석자 : 현봉학교수, 길영환교수등 12명이 참가했으며 문정인교수 (당시 서울체류), 김진우교수 등 24명이 위임장 (PROXY)를 보내왔고, 이 중에는 JOHN DUNCAN (UCLA 역사학교수), RUSSELL MARDON (CALIFORNIA STATE UNIV. 정치학교수) 같이 미국인으로서 KOREA학을 연구 강의하는 학자들도 참가하였다.

◎회의진행경과

당시 본학회 의료부회위원장인 현봉학교수의 사회로 개최되었으며 현교수는 회의의 서두에서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이번 회의를 소집하게 된 취지와 목적을 설명했다. 그후 참가자들은 현교수를 이 회의의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고 현봉학임시의장이 주도하여 다음 사항을 토의 결정했다

- 회칙의 수정안을 승인
- 미주본부의 조직명칭을 영어표기할 때는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in Americas (ISKSA)>로 하며 KOREA어표기로는 <미주국제고려학회>로 한다.
- ISKSA는 영리법인으로써 조직된다.
(미주본부의 KOREA어표기에 대해서는 제1차북경운영위원회에서 토의한 결과 <국제고려학회미주본부>로 하기로 결정되었다.)
- 현재 참가자는 새로 승인된 회칙에 따라 미주본부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후보지명위원회 (NOMINATING COMMITTEE)>를 구성한다.

◎임원선출

다음의 분들이 추천을 받아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다.

- 회 장 : 현봉학교수
- 부회장 : 길영환교수 (IOWA주립대, 본학회정치법률부회위원장)
양용진교수 (JAMES YANG, CANADA의 TORONTO GENERAL HOSPITAL)

다른 임원은 회장, 부회장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임명하기로 했으며 현재 임명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 사무국장 : 김응택교수(DRUXELL UNIV 국제정치)
 - 사무차장 : 백원광교수(CENTRAL MICHIGAN UNIV 행정학, 본학회 본부사무국사무차장 겸직)
 - 서 기 : 김미령(SOCIAL SIENCE RESEARCH BUREAU 간사)
 - 재 무 : 장지윤
- 이후 기획위원회와 각부회별 위원회도 조직했다.

◎ 토의사항

- 학회의 NEWS LETTER 는 정기적으로 (매년 1회, 또는 반년에 1회) 발행되어야 한다.
미주의 NEWS는 ISKS의 大阪본부사무국에서 발행하는 NEWS LETTER 에 통합되어야 한다.
- 회원명부(MEMBERSHIP DIRECTORY)를 발행
- 각종 학술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회의록도 발행해야 한다.
- 앞으로 회원은 적극적이고 계속적으로 모집해야 한다. 창립총회에 참가한 분들과 위임장(PROXY)을 보내온 분들은 자동적으로 회원이 된다. 현재 미주본부의 회원은 벌써 106명으로 증가되었으며 회원신청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고무적인 소식이 미주본부로부터 전해지고 있다.

아시아제 2 분회의 연구활동

일본, 중국, 미주등 본학회의 지역본부의 활동이 점점 활기를 띄워감에 따라서 지역별로 연구회활동을 일상화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요청이 제기되었다.

일본을 중심으로하는 아시아제 2분회에서는 우선 일본지역에서 연구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지난 봄부터 수차에 걸쳐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일본의 전지역에 흩어져 있는 회원 및 KOREA학연구자들이 한 장소에 정기적으로 많이 모이는 것은 현실적 조건으로 보아서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東日本과 西日本으로 편의상 분류하여 정기적으로 연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일본의 전지역에 있는 연구자들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1년에 1회정도 <합동연구회>도 기획하기로 했다.

부회별 연구회는 과학·기술부회가 지난 9월부터 활동을 개시했다.

1. 국제고려학회 東日本인문사회과학연구회

10월 5일, <준비회>를 거쳐서 12월 7일 제1회연구회를 개최하기로 되었으며 담당자와 연구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당자

대 표: 大村益夫 (早稲田大学 教授, 국제고려학회 아시아제 2분회대표)
총 무: 文京洙 (國際基督教大学 助手)

◎東日本연구회준비회

일 시: 1991년 10월 5일 (토)
15:00 ~ 18:00

장 소: 法政大学 大学院棟 207

보고자: 金元重 (法政大学 博士過程)

테 마: 제 1차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경제개발체제의 성립

◎제 1차연구회

일 시: 1991년 12월 7일 (토)

장 소: 法政大学 大学院棟 202

보고자: 李鍾元 (東北大学 法学部 助教授)

테 마: 전후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지역통합> 구상과 한일관계
1945-1960

2. 국제고려학회 西日本지역연구회

연구회를 발족시키기 위한 논의과정에서 첫단계에서는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수차에 걸친 협의와 북경에서 열린 제 1차 운영위원회의를 거친다음 최종적으로 위와같이 결정되었다.

◎담당자

대 표 : 滝沢秀樹 (본학회경제부회 위원장, 甲南大学経済学部 教授)

총 무 : 高龍秀 (본학회경제부회 총무, 甲南大学経済学部 講師)

◎제 1차연구회

일 시 : 1991년10월19일 (토)

14:00 ~ 17:00

장 소 : 大阪府教育会館 (다까쓰가-든) 3F 「蘭」

보고자 : 滝沢秀樹 (본학회경제부회 위원장, 甲南大学経済学部 教授)

테 마 : 한국제조업노동자의 현황

본학회의 부회장인 오청달교수가 연구회시작 전에 <지역별 연구회의 활성화는 학회활동을 발전시키는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기에 찬 연구회가 되길 바란다.>는 요지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여러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참가했다.

다끼자와선생은 한국의 경제성장에 의해 사회변동-특히 노동자계급과 도시중산층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왔는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보고하였다. 그중에서 ①노동자계급은 서울수도권과 경상도에 2극집중하였으며 이 지역으로의 인구집중이 현저하다는 것 ②도시중산층은 수도권에 집중하였으며 수도권에서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2극분해가 심하고 저소득층의 주택사정은 열악하다는 것 ③80년대에 고임금노동자가 일정한 층으로 형성되어 왔다는 것을 많은 통계를 써서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보고를 마친다음 참가자들로부터 한국에서의 노동자의 실태와 오늘 한국경제가 가지는 문제에 대한 활발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연구회가 끝난후 참가자들끼리 上本町근처의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겸해서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을 가졌다.

◎제 2차연구회

일 시 : 1991년12월21일

14:00 ~ 17:00

장 소 : 大阪府教育会館 (다까쓰가-든) 「松寿 B」

보고자 : 辺英浩 (大阪経済法科大学 아시아연구소연구원)

테 마 : 朝鮮朱子학과 社會의 特質-16세기의 李栗谷을 중심으로-

3. 과학기술부회

◎제 1 회 과학기술부회연구회

상기 연구회가 1991년 9월14일 오사카국제교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강연자 및 강연제목은 아래와 같다.

- 오청달 (大阪經濟法科大学 교수)
〈최근의 국제고려학회의 활동에 대하여〉
- 고태보 (京都大学 農学部 강사)
〈벼해충L.oryzophilis KUSCHEL 의 朝鮮半島에로의 侵入에 관하여〉
- 장년석 (대판전기통신대학 교수)
〈訪中報告 및 국제고려학회 제 1회 운영회의에 관하여〉

이번 처음으로 유익한 연구회를 가질수 있었다. 연구회를 통하여 국제고려학회전반의 최근 동향을 알수 있었으며, 그중에서 과학기술부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벼해충의 강연에서는 조선반도에 침입한 경과와 대응, 현상과 그것을 방제하는 시안 등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정보제공등 우리의 역할에 대하여서도 본부회의 목적과 함께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회를 계속하여 회원호상간의 교류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의견이 일치되었다.

◎제 2회 과학기술부회연구회

1991년12월14일 오사카국제교류센터에서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연구회가 열리어 보고내용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 정만우 (大阪電氣通信大学)
〈조선에서의 金屬活字의 發明과 구-텐베르그의 印刷術〉
- 심재동 (OIC 大阪情報컴퓨터專門學校)
〈최근의 한국, 공화국과의 科學交流에 대하여〉

이번 연구회에는 중국에서 京都大学에 와계시는 김명관선생님 (北京大學 물리화학전공) 과 국제고려학회 본부사무국원 (송남선국장, 양관수차장, 김복화) 들도 참가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래년도 계속 연구회를 개최하여갈 예정이므로 많은 회원들이 참가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보고된 요지도 여분이 있으므로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사무국까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경 서화세미나 및 작품전시회

국제고려학회의 주최하에 <북경 서화세미나 및 작품전시회>가 1991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본모임에는 북측대표 10명, 남측대표 29명(그중 정식대표 20명), 중국대표 10명과 연변조선족대표 3명이 참가하였다. 분단된지 46년만에 처음으로 만난 남북의 서화가들은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서 그동안 각자 발전시켜온 서화예술의 현상태에 대하여 소개하였고 서화예술에 대한 학문적입장, 제이론에 대해서도 뜨겁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다.

본모임에서 남북의 서화가들은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조국통일의 위업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서는 남북사이의 보다 많은 교류와 상호이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본모임의 조직과 운영일정은 다음과 같다.

◎조직

- 고 문 : 최응구 (국제고려학회 회장)
- 오청달 (국제고려학회 부회장)
- 주석단 : 최응구 (국제고려학회 회장)
- 박진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술작품국가심의위원회 위원장)
- 정주환 (한국서화가총연맹 이사장)
- 문정일 (중국조선족총회 회장)
- 오청달 (국제고려학회 부회장)
- 곽경림 (아세아게임선수촌 부촌장)
- 진대장 (중국로년서화사 비서장)

◎조직위원회

- 위 원 : 량오진 (국제고려학회 본부사무국차장)
- 김 훈 (국제고려학회 아세아체 1분회총무)
- 최려홍 (국제고려학회 북경사무국총무)

◎일정

- 환영연회 : 5월 26일 PM 6:00~8:00까지 五州大酒店
- 서화교류전 : 5월 27일 AM 9:00~12:00
- 5월 29일 AM 9:00~12:00 까지 2차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 서화토론회
- 일 시 : 5월 28일 AM 9:00~12:00
- 토론주제 : KOREA서화의 특징 및 전망
- ① 서 예 - 남북조선에서 각각 1명씩 발표
- ② 동양화 - 남북조선에서 각각 1명씩 주제발표
- 발표후 종합적으로 토론했다.

참가자 : 중국측에서는 진대장 (중국로년서화사 비서장) 등 11명, 연변
조선족대표로서 오명남 (연변조선족서화가협회 부회장) 등 3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박진영 (작품심의위원회 부위원
장) 등 10명, 한국은 정주환 (한국서화가총연맹 이사장) 등
29명 모두 53명의 서화가들이 참가했다.

참가작가 : 서양화 13명
동양화 10명
서예 29명

마무리 : 이번 모임을 계기로 하여 참가자일동은 <범민족통일미술전>
을 멀지 않는 장래에 평양이나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만
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리고 그 준비를 위한 실무자회의를
빠른 시일내에 판문점 또는 북경에서 열것을 결의했다.

국제고려의학학술회의 개요

(1991.7.25~ 7.27 중국 연길)

의료부회 총무 김영일

국제고려학회 의료부회 (玄鳳學위원장) 과 연변의학원 (沈鉄寬원장) 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 본학술회의에는 중국내조선족의사, 간호부등 약 200명, 해외에서는 미국, 일본, 한국, 독일, 벨기에에서 약 100명의 동포의료인이 참가했다. 대회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개회식
- 내외저명의학자들에 의한 특별강연
- 예방의학, 기초의학, 중의학, 내과, 외과, 간호학, 흉부외과, 정신외과의 8 분과회
- 심포지움 <中国朝鮮族과 在日同胞의 肝硬變, 肝癌, 心臟, 腦血管疾病에 대해서와 靑少年學生의 發育狀況에 대하여>
- 폐회식

개회식에서는 길림성정부대표와 연변조선족자치주장의 인사와 WHO 아세아·태평양지구 주입의 발언이 있었고 본회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첫날짜와 마지막날에 각각 공동위원장이 주최하는 연회가 있었는데 세계 각국에서 많은 동포의료인이 한자리에 모였기때문에 모두 기쁨에 넘쳐서 뜨거운 친선의 마당이 되었다.

이번 학술회의는 결과적으로 큰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지만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총괄적이고, 산만한 인상을 면할수 없었다. 앞으로는 착실하게 기획을 세워 몇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보다 깊게 수준높은 토론이 전개될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국제고려의학학술회의에 참가하여

의료부회 총무 강경부

국제고려학회가 90년 8월에 발족하여 중국의 연변의학원 (沈鉄寬원장) 과 국제고려학회의료부회 (玄鳳學위원장) 가 공동주최한 첫번째의 국제학술회의였다. 의료부회의 사무국은 일본 오사카, 현봉학위원장은 미국, 개최지는 중국 연변이라는 지리적분단때문에 충분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못한채 회의준비는 진행되어갔다. 그러나 현봉학위원장의 동포의료인과의 폭넓은 연대와 활동력덕분에 북경에서 수차례, 일본에서도 수차례의 모임을 가지면서

회의준비를 전진시켜 갈수 있었다.

본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참가는 실현되지 못했으나 한국, 미국, 독일, 벨기에 등 여러나라가 참가하였다. 일본에서는 金萬有先生(西新井病院 院長), 玄鍾完先生(재일본조선인의학협회 회장)을 중심으로 9명이 참가했다. 중국은 일본의 사회제도와 여러가지면에서 차이가 있어서 예견할수 없는 트러블을 각오하였으나 북경도착한 날부터 예약된 비행기가 취소되어버린 해프닝이 있었다. 연변여행사가 담당한 비행기예약은 7월24일 오후 6시40분 연길도착예정이었으나 실제로 도착한것은 밤 12시가 넘어서였다.

김만유선생님도 결국 피로가 겹쳐 25일 예정되었던 특별강연을 취소함에 따라 본인이 대신 「極小肝細胞癌의 臨床病理学的的研究」를 강연하게 되었다.

특별강연은 각분야의 제 1인자라고 할수 있는 분들이 했기때문에 나의 발표를 마쳤을때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다.

나에게 있어서 참으로 귀중한 체험이었다.

특별강연, 각분과회의는 지극히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두번에 걸친 축하연도 세계각지에서 참가한 학자들과 깊은 교류가 이뤄져 우리 모두는 만족할수 있었다.

국제학회는 처음이라는 연변의학원 담당자와 선생님들의 노력에 감사하여 우리 동포의로인이 한곳에 모여 토론하며 교류를 가질수 있었던것은 참으로 의의깊은것이였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앞으로 세계 여러곳에서 활약하고있는 분들과 만나서 교류받을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로도 국제고려학회가 세계적으로 발전해나갈것을 기원합니다.

중국 연변땅에서 열려진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여

의료부회 총무 안아자

올해 7월에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연길비행장에 도착하니 얼마나 기뻐는지 모릅니다. 이곳 일본 오사카를 출발하여 북경까지는 순조로이 갈수 있었는데 북경에 도착하니 련이어 갈아타야했던 연길로 들어가는 비행기는 없고 려행사사람은 북경비행장에 나오지 않았던것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걱정은 하면서도 그냥 비행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제고려학회 사무국성원은 려행사에 전화도 걸고 련락을 몇번 취하여 겨우 려행사사람이 비행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후 1시경에 도착한 우리에게 8시경에 비행기가 떠나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북경에서 연길까지는 2~3시간이니 그날중으로는 도착할것이니 마음이 놓이기는 하였으나 비행기에 타니 연길까지의 직행이 아니라 심양에서 다시 갈아타야 했던것입니다. 겨우 연길에 도착하니 이미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국제고려의학학술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학술회의에는 직접 참가하지 못했으나 얼마나 의의있고 정답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은 마지막 연회에 참가하여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낮선 사람들이 서로 탁상에 둘러 앉아 우리말로 자기 소개가 시작되고 명함교환도 시작되었습니다. 제앞에 앉은 의사는 미국에서 온 분이었습니다.

마지막 연회에서는 서로 나라별로 노래나 춤을 준비하였는데 마치려하여도 끝이 없이 계속 자기도 하겠다느니 누가 노래를 부른다느니 사회자가 정신을 차릴수 없이 요청이 나옵니다.

회장을 쓰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계속 요청이 오니 어찌면 좋은지 사회자는 머리를 앓고 여기서 끝나겠다,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사회를 계속하였습니다. 서로 노래를 부르면서, 그리고 노래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즐거운 한때를 지냈던 것입니다.

여러 나라, 지역에서 모이기는 하였으나 다 같은 민족이고 서로 말이 통하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몇번이고 느끼곤 하였습니다. 서로 같은 민족인데 왜 갈라져서 살아야 하는가하고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학학술회의는 성과적으로 최종목적을 수행하여 진행되었다고 느껴집니다.

이 회의 준비와 그 성과적 추진을 위해 연변의학원과 국제고려학회 사무국에서 얼마나 수고를 하였는가를 이 회의가 마친 다음에 있는 KOREA학소장학자국제학술토론회에 참가하여 더욱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담당자들께서는 아주 수고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코리아학소장학자국제학술토론회

금년 여름 7월28~31일(3박 4일) 까지 중국 연길시에서 KOREA학에 관련된 소장연구자 (만40세이하) 중심으로 국제학술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만40세이하의 소장연구자를 참가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40세이상 되는 많은 학자들로부터 연령을 기준으로 참가자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참가를 강력하게 희망한 분들이 많았지만, 이번 토론회의실행위원회가 참가범위를 정해서 많은 연구자들에게 통지를 한 이상 토론회의 운영방침을 지키지 않을수 없었다.

1990년 8월 5일 창립된 국제고려학회로서는 일반적인 학회활동에 비교해서 좀 더 색다른 것을 해보자는 의욕과 함께 국제적인 규모로 하는 학술회의에 소장연구자들이 참가할 기회가 별로 많지않다는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서 소장연구자들의 논문발표기회의 확대와 연구의욕을 더욱 자극하기 위해서 소장연구자중심으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등 9개국에서 350여명의 연구자들이 참가하여 각부회별로 수준높은 논문의 발표와 함께 열기에 찬 토론들이 벌어져 젊은 연구자들의 왕성한 연구의욕을 보여주었으며 KOREA학에 관한 소장중심의 국제학술토론회를 처음으로 시도한 의의를 더욱 깊게 했다.

1. 대회조직개요

◎주최: 국제고려학회, 길림성사회과학원

협찬: 吉林省東北亞研究中心
延辺自治州社会科学院
米州韓人教授協議會

◎실행위원회

고 문: 崔 屹九 (국제고려학회 회장) 吳清達 (국제고려학회 부회장)
高振濤 (吉林省社会科学院 부원장)
呂 欽文 (東北亞研究中心 常務副理事長)
孟 謙倫 (吉林省社会科学院 秘書長)
李正文 (延辺朝鮮族自治州 对外文化交流中心 主任)
金成桂 (延辺朝鮮族自治州 선전부장)

실행위원: 陳龍山 (東北亞研究中心 秘書長)
梁 伍鎮 (北京大学 講師)
梁 官洙 (국제고려학회 사무국차장)
程 佐林 (吉林省社会科学院 办公室 主任)
金 焜 (北京大学 講師)
金成秀 (大阪經濟法科大学 助教授)
劉 濶學 (延辺朝鮮族自治州接待處 處長)

2. 대회준비 및 운영

◎ 준비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구상은 작년 국제고려학회가 창립된 직후부터 논의되어 90년 9월 국제고려학회와 중국의 관계자사이에 계속 협의해왔다. 그러나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때문에 토론회의 개최시기와 장소가 91년 1월에 들어가서 확정되어 참가대상자들에게 통지서를 금년 1월23일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대회를 준비하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해서 준비과정에서부터 끝날때까지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게 되었다.

본토론회의 초청대상자들에게 통지하고 신청접수 업무는 중국실행위원회와 국제고려학회 본부사무국이 분담해서 진행했고 중국측은 중국국내 북조선, 몽고, 소련을 담당, 국제고려학회 본부사무국(大阪)은 일본, 한국, 台灣, 미주, 유럽을 담당했다.

◎ 참가자현황

토론회개최에 관한 통지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한국, 일본등지에서는 참가신청자가 예상외로 많았다. 특히 한국에서 참가하고 싶어하는 연구자들이 제일 많았으며 신청자를 연령별로 분류해보면 40세 이하가 150여명, 40세이상인 25명(計 175명)으로 집계되었고 중국실행위로 접수된 신청자수는 아직 자료정리가 되지 않아서 집계되지 않았지만 종합적으로 볼때 이번 토론회에 참가를 희망했던 연구자들이 주최측의 예상을 훨씬 넘을정도로 많았다고 하는 사실은 KOREA학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면서 심화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밝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으로부터 참가신청자가 대단히 많았지만 나라별로 초청자가 제한되어 있었기때문에 내부조정을 거쳐서 결국 70여명 밖에 참가할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워으며 특히 40세 이상되는 학자들의 참가희망이 강렬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청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양해를 구하고 싶다. 각국별로 실제 참가자수는 <表-1>과 같다.

◎ 부회운영

부회는 언어, 문학, 역사, 경제, 철학·종교, 사회·문화·교육, 정치·법률등 7개부회로 분류하여 운영했으며 여성문제를 중심으로한 여성연구자들의 논문발표와 토론이 열기를 띠어서 <여성분과>를 긴급히 설정하고 토론회를 속개하여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던 점은 특기할 만하다. 각부회 사회자는 부회별 참가자 가운데서 선정했으며 국제고려학회의 각부회위원장들은 발표된 논문에 대한 <논문평가위원>으로 참가했다. 한국의 조용범교수(高麗大) 등 몇분은 <논문평가위원>으로 특별초청했다.

신청된 논문 300편 가운데 18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부회별·각국별 논문발표현황>은 <表- 2>와 같다.

각국별참가자현황 <표- 1>

中国	99人	소련	1人
韩国	71人	터어키	1人
日本	29人	台灣	1人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2人	독일	2人
米国	8人	기타	130人
총계			354人

부회별·각국별논문발표현황 <표- 2>

部会	国別	中国	韩国	朝鮮	日本	美国	소련	유럽	計
言語		9	6			1		1	17
文學		9	5	2	2	1			19
歷史		10	23	1	2	1		1	38
經濟		9	9		1			1	20
哲學·宗教		4	15	3	2				24
社會·文化·教育		18	11	1	1	3		1	35
政治·法律		1	19	3	4	4			31
計		60	88	10	11	10		4	184

◎국제고려학회상의 제정

토론회의 학술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KOREA학 연구에 전력하고 있는 소장학자들을 고무격려하기 위하여 본학술토론회의에서는 「국제고려학회상」을 제정하였다. 권위있는 학자들로 구성된 논문심사위원회에서 발표된 논문중 부회별로 5편의 우수논문을 선출한 다음, 그중 한편씩을 뽑아서 「제4차조선학국제학술토론회」때 수여하기로 결정하였다.

◎평가

이번 국제학술토론회의는 KOREA학연구분야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젊은 학자들의 모임이었다. 그러므로 세계 각국의 젊은 KOREA학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학술교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되었고 또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젊은 학자들사이의 상호이해와 친선을 강화함으로써 KOREA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소로도 되었다.

주최측에서는 <토론은 진지하고 열렬하게, 교류는 친근하고 활발하게>라는 구호밑에 회의를 주관하였으므로 이번 회의는 전체적으로 학술적이고도 친선적인 분위기로 흘러 넘쳤다.

발표된 논문들 가운데는 현단계 세계의 KOREA학의 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우수한 논문들이 많이 나왔으며 젊은 학자들의 기백과 예지를 보여주는 특색있는 논문들도 적지 않게 있었다.

특히 남북 KOREA의 젊은 학자들이 이념과 체제의 장벽을 넘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학술토론을 진행하게 된 것은 이번 학술회의의 가치를 돋보이게 해주었다.

회의참가자들은 이번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에 만족을 표하였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모임이 자주 있기를 한결같이 희망하였다. 그리고 일부학자들은 이러한 모임이 멀지않은 장래에 KOREA학연구의 중심지인 남이나 북에서 개최되기를 바라는 심정을 절실하게 말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준비시간의 촉박함과 기타 여건부족때문에 논문요지집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것등 일부 미흡한 점들도 있었지만 총체적으로 보아 예상했던 기대치를 달성하였으며 KOREA학의 세계적 발전과정에 역사적으로 뜻깊은 한페이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믿는 바이다.

언어부회에 참가하여

언어부회 총무 지정희

이번 언어부회토론회는 여러나라에서의 젊은 KOREA민족의 의견교환이 활발히 벌어진 인상이 남는다.

각 보고를 마친 다음의 질의응답에서는 시간이 모자랄만큼 토론이 벌어졌다. 좋은점은 발표에 대하여 비난, 중상을 하는것이 아니라 건설적 의견

이 많이 나왔으며 시종 활기에 찬 분위기였다는 것이다.

유감스러운것은 일본을 비롯하여 (참가자는 있었으나 보고자가 없었다.) 공화국에서의 참가자가 언어부회에 오지 못한것이다. 이것은 공화국의 동향을 알고 싶거나 교류를 갈망하는 연구자에 있어서는 타격이 되었을것이다.

한국에서의 참가자도 같은 대학의 연구자가 많아서 좀더 폭이 넓으면 좋았다고 느껴진다.

앞으로 이번 토론회의 논문집이 작성된다면 고맙겠다.

여러가지 개선해야할 점이 있으나 이번 소장학술토론회에 참가하여 젊은이의 숨결이라 할까, 학문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미래의 전망을 확고히 느끼게 해주었다. 이러한 마당을 차리는데 회의실행위위원회사무국과 국제고려학회사무국 담당자들은 많은 로고를 하셨다고 듣고 있다.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문학부회에 참가하여

문학부회 총무 배정열

문학부회의 발표는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백산호텔 6층회의실에서 열렸다. 소규모의 회의장에 25명가량의 한국, 조선, 일본, 중국의 4개국학자들이 모여 가족적인 분위기속에서 총15명의 발표가 있었고 서로의 의견교환이 활발이 이루어져다.

참가자로서는 早稲田大学の 大村 교수부부, 중앙민족학원의 김도권부교수, 조선의 리동윤, 박길남선생님, 재일교포 한몽무, 정행자선생님, 한국에서 박재우, 김재용, 문영희선생님 그리고 중국의 최용권, 오상순, 윤윤진선생님과 그의 재중조선인작가와 중국인학자 소수가 끝까지 회의장을 떠나지 않고 하나하나의 발표에 관해 코멘트 및 열띤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다른 부회에 비해 발표자가 적은 편이었고 참가자 역시도 소규모이어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며 참가자전원의 자기소개와 인사가 있었으며 중국차를 마시면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발표내용을 국가별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일교포 정행자, 한몽무선생님의 발표는 재일교포의 문학에 관한 내용이었다. 정행자선생님은 재미교포 Cathy Song의 작품세계와 재일교포 이양지의 소설작품의 소개와 차이점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한몽무선생님은 일본에서 활동한 허남기시인의 작품세계에 대한 분석이었다.

조선의 리동윤선생님은 「송설당집」에 관한 새로운 자료의 소개와 작품 분석, 박길남선생님은 조선의 평민시조에 관하여 사회주의적관점에서의 근대성에 관한 내용이었다. 두 선생님의 정해진 시간내의 발표문의 요약 및 학회참가태도는 지금까지도 인상깊게 남아있다.

한국에서는 김재용, 문영희선생님의 「카프」 문학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카프문학에 대한 연구현황의 소개도 겸한 발표이었으며 카프문학작품의 교과서문제가 거론되었다. 나라와 출판연대에 따른 작품의 내용, 편집이 다른등 현재 카프문학연구에 있어서의 현안문제가 깊이있게 토론되었으며 가장 많은 질의가 있었던 점이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박재우교수의 한국에 있어서의 중국문학의 번역, 소개 상황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중국에서는 재중교포인 오상순, 장춘식, 최웅권, 윤윤진선생님의 발표가 있었다. 오상순선생님은 1980년대 중국에 있어서의 재중조선인의 작품세계와 내용에 관한 발표였다. 아직 중국이외에 발표되지 못한 재중교포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신선감이 있었고 그들의 현안문제와 고뇌등 작품의 주제면에서 흥미를 끄는 발표이었다. 재일교포 두선생님의 발표와 같이 국제고려학회가 아니면 듣기 힘든 발표이었다.

그리고 윤윤진선생님의 김동인의 작품세계에 관한 발표가 있었고, 연변대학 조문, 중문학과 교수들의 고대조선의 한문작품세계와 고대중국작품과의 연관성, 즉 영향관계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그리고 금번 학회에는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중교포 작가, 시인들의 참가가 눈에 띄었으며 그들 작품의 해외소개에 관한 열의도 보여주었다.

금번 국제고려학회에 참가한 학자들의 진지한 의견교환과 친목교류, 그리고 세계각국의 우리 문학의 연구상황에 관한 실정파악을 할 수 있는 기회였으며, 보다 많은 학회교류를 통한 연구 실적물등의 교환의 필요성을 재인식했던 뜻깊은 국제학술토론회였다.

(7월30일 오후발표는 기록자의 건강상태가 나빠서 회의에 불참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발표내용을 기록하지 못한점 사과드립니다.)

력사, 철학 · 종교부회에 참가하여

력사부회 총무 변영호

●력사부회

39명이 보고예정이었으며 당일 제일 윗층의 제일 넓은 회의실이 가득찰 정도로 상당수가 참가했고 아마 50명은 넘었을것으로 생각된다.

(1) 성과

항상 50명을 넘을정도로 참가자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보고에 대한 질의응답이 대단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 발표내용도 고고학에서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그리고 각자가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대단히 온화한 분위기속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아니라 건설적인 방향에서 토론이 진행되었다.

(2) 반성해야 할점

넓은 회의장에서 했기때문에 보고자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서 마이크의 준비가 필요했으며, 보고자와 질문자 량쪽에 마이크준비가 필요했다. 철학·종교, 력사부회 량쪽 다 보고요지의 복사준비, 앞으로의 방침등의 면에 있어서 주최측의 준비부족이 눈에 띄었던점을 부정할수 없다. 그러나 남북조선의 학자사이의 교류에 모두 대단히 적극적이어서 국제고려학회의 의의가 대단히 크게 부각되었다.

●철학·종교부회

보고예정자는 24명이었으며 부회참가자는 30~40명이 항상 참가했다.

(1) 성과

부회의 전체참가자는 40명정도되는 소규모였지만 하나하나의 보고에 대해서 대단히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발표내용도 불교, 유학, 실학(實學), 주체철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했다. 그리고 논문발표한 각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대단히 온화한 분위기속에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건설적인 방향에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점은 소규모의 부회였기 때문에 얻을수 있는 장점이라고 말할수 있다.

보고와 질의응답은 모두 한국어(조선어)로 했다. 국제학회에서 흔히 사용언어문제때문에 의사소통이 잘 안되기도 하고 시간량비등의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번 토론회와 같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한 점은 앞으로도 유지해야할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 중국의 조선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온 참가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점도 유리했지만 일본의 경우 일본어의 사용이나 통역문제가 생기는것을 생각하면 이번과 같은 분위기는 앞으로도 유지해가지 않으면 안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부터 온 참가자의 보고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 쏠려서 시간연장이나 부회보고가 끝난후에도 토의시간을 더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남북조선의 통일을 넘두에 둔 사상적교류에 있어서 좋은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주최자측의 적극적증립을 견지하는 자세가 빚어낸 좋은 효과이기도 할것이다.

(2) 반성할점

①원래 예정에는 철학·종교부회가 설치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부회의 참가대상자들에 대한 연락이 늦었고, 그래서 참가자가 어느정도 줄어든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된다.

②학술토론회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문제이지만 발표시간이 20분정도로 제한되어있어서 역시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첫째, 자주 활발한 질의응답이 나오는 보고가 있어도 시간이 모자라서 개인적으로 토론하는것으로 마무리되어 결국 소화불량으로 끝나버리는 점이다.

둘째, 보고내용에 관한것인데, 史料를 제출하고 면밀하게 보고할수가 없어서 막연하게 연구사정리하는 보고가 몇개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연구분야의 현시점에서의 수준에 의해 규정받기도하고 史料를 철저히 엄선한 위에서 쟁점을 명확하게 내놓으면 어느정도 해결할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다시말하면 연구자의 자세문제이기도 하기때문에 일률적으로 시간의 제약때문이라고 규정해버리기에는 어느정도 류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것이다.

- ③미리 보고원고가 참가자전원에게 배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토론의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은 감이 있었다. 소장학자토론회보다 먼저 개최된 의 학사회의의 경우, 등록과 동시에 한편의 책으로 된 보고요지집을 나누어준것과 비교해보면 준비가 대단히 서툴렀다고 생각된다. 참가자들이 대단히 불만을 나타냈다. 발표당일에야 제출된 보고요지가 발표할때 배포되기도 하고, 참가자개인이 당일 발표용요지COPY를 독자적으로 가지고 오기도 했지만, 역시 미리 읽고와서 참가하는 경우에 비하면 그 내용의 리해도에 있어서 큰 차가 나오는 점은 불가피한 일이다. 책으로 만들 경우에는 각자가 보내온 보고요지를 새롭게 활자화하지 않는다면 보내온 요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제본하게 될것이다. 그런 경우 신청사에게 사용용지의 크기(SIZE), 字数등을 주최측에서 미리 정해서 안내장을 보내야할것이다. 이점은 큰 문제이다.
 - ④이번 대회에서 발표한것을 앞으로 논문으로 완성하여 주최측에 보내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했으며 이점 참가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리지 않았다.
 - ⑤우수논문에 대해서 <국제고려학회상>을 수여한다고 하는데 논문심사내용이 명확하지 않았다.
- (②~⑤의 문제점은 역사부회에도 공통된점이다.)

제 1 회 운영위원회

지난 8월 3일 국제고려학회 제 1차운영위원회가 北京五州大호텔 2층회의실에서 열렸다. 당일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된 운영위원회는 회장단을 비롯, 각 지역대표와 부회위원장등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성수사무차장의사회로 오후 5시까지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각 지역대표의 보고로 시작된 본 회의에서는 백원광사무차장이 북미주발기대회 (가칭) 보고를 하였는데, 회장에는 현봉학교수, 부회장에는 길영환교수, 제임즈 양교수가 각각 선임되었고, 앞으로 조직구성과 수준높은 회원을 모집하기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전했다.

오후 2시부터 재개된 회의에서는 회칙개정 (안) 에 관하여 토론을 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첫째, 코리아 (Korea) 학이라는 표현을 회칙 제 1조에만 남기고 제 2조이하 코리아학이라고 한다.

둘째, 각 지역분회의 명칭을 지역본부로 칭하기로 한다.

셋째, 회칙 제 4조의 회원자격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부분을 삭제한다.

넷째, 부칙 1항에 지역본부를 삽입한다.

주요결정사항으로는

첫째, 제 2차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는 제 4차조선학국제학술토론회가 열리는 곳에서 하기로 한다.

둘째, 이번 KOREA학소장학자국제학술토론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국제고려학 회상에 대해서는 이번 대회에 한해서만 상을 수여하기로 한다.

셋째, 부회는 현재 9개부회에서 11개부회로 증설하며 교육·문화·예술부회를 교육·체육부회와 문화·예술부회로, 정치·법률·사회부회를 정치·법률부회와 사회부회로 분리한다.

넷째, 서울과 평양에 각각 본학회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한다.

다섯째, 국제고려학회 미주본부의 발족과 더불어 의료부회 위원장인 현봉학교수가 미주지역의 회장으로 선임되면서 공석이 된 의료부회위원장에 이형모교수를 만장일치로 추천하였다.

국제고려학회 사무국 활동보고

(1990.10-1991.12)

1990년	내 용
10/5 10/15	제 1차 차장확대회의 사무국조직과 회원모집에 대하여 제 2차 차장확대회의 국제고려학회 News letter (년 2회발간) 발행결정 91년 중국 연변에서 개최예정인 소장연구자토론회에 대해협의
11/16 11/21-12/3 11/24-12/1 11/27-12/9	제 3차 차장확대회의 오청달부회장 북경, 평양방문 제 4차조선학국제학술토론회문제와 한국학술단체협의회에서 제기한 <남북학술토론회> 문제협의 최응구회장 평양방문 양관수사무국차장, 김철웅철학·종교부회총무미국방문 국제고 려학회 미주조직정비와 소장학자토론회개최에 관한 협의
12/25-1/3 12/27	최응구회장 서울방문 한국서화가총연맹 북방문제연구소 초청 제 1차 사무국회의, 교류모임 각부회장, 사무국원 (在日本), 각부회별총무 (9人), 부총 무중심으로 회의, 국제고려학회 사업보고 및 토의
1991년	내 용
1/11	제 4차 차장확대회의 91년 소장연구자토론회 협의
2/8-15 2/10 2/19 2/4 -22	최응구회장 來日 최응구회장, 각부회위원장 (日本在住, 11명참가) 교류회 현봉학의로부회위원장 來日 회원신청서 발송작업, 日本在住대상 2065통
4/2 4/6	의료부회-국제고려의학학술회의에 관한 협의 의료부회-회의예산과 일정에 관한 협의

4/8	제 6차 차장확대회의 예산문제 (사무국, 소장회의, 의학회의)
4/10	김도권문학부회위원장 오사카 방문 문학부회활동에 대해 협의
4/17	정치·법률부회
4/26	의료부회-예산, 후원단체문제협의
4/27	제 1 차운영위원회북경회의소집에 관한 안내장발송
5/초	회원신청접수, 데이터수정작업개시
5/10-12	김성수사무차장 訪中 소장학자회의 협의
5/13-14	현봉학의료부회위원장 來日, 의학자회의에 관한 협의
5/17-19	경제부회의 연구회조직에 관해 關東지구협의
6/3	KOREA학소장학자회의 참가신청자 접수, 데이터입력작업시작
6/7	제 7차 차장확대회의
6/12-19	양관수사무차장 북경, 장춘 출장 KOREA학소장학자회의와 국제고려의학학술토론회에 관한 협의
6/18-24	국제고려의학학술회의실행위원회 來日 연변의학원 張恒良 (延辺医学院 副院長) 李牧子 (延辺医学院 科研処 副處長)
6/20	국제고려의학학술회의실행위원회 협의회 (大阪가-뎀파레스)
6/21	국제고려학회 부회총무모임
6/25-26	의료부회 총무 北京방문 北京에서 국제고려의학학술회의 실행위원회
6/28	과학기술부회 협의회
6/29	의료부회-北京에서 실행위원회의, 의학자회의 일정과 진행 에 대하여 협의
7/11	과학기술부회 협의
7/18-20	백원광사무차장 來日
7/25-27	국제고려의학학술회의 개최 의료부회 김영일총무 등 참가
7/28-31	KOREA학소장학자국제학술토론회 개최 각부회 위원장, 부회총무, 김성수차장, 김복화 참가

8/ 3 8/22	북경에서 제1회 운영위원회 강희웅부회장 來日 제4차조선학국제학술토론회 개최에 대해서 협의
9/6 9/14	사무국회의 - KOREA학소장학자국제학술토론회와 국제고려의학 학술회의에 대해서 보고 및 평가 앞으로 학회활동에 대해서 협의 과학기술부회 제 1회연구회
10/4 10/5 10/19 10/21 10/31	일본 東西지역대표 교류모임 동일본지역연구회 준비회의 서일본지역 제 1회연구회 제 8차 차장학대회의 한국 원광대학 김도종, 김영두교수 來日 본학회와의 학술교류협의, 조용범고려대교수, 오정달부회장 김철웅선생, 양관수사무차장, 김복화 참석
11/1-2 11/12 11/13-14 11/25-30	동아시아심포지움 (大阪經濟法科大学 주최) 참가자들과 교류 News letter 원고의뢰, 편집, 교정작업개시 현봉학 본학회미주본부 회장 來日 미주본부조직과 미주지역에서의 학술회의개최 및 의료부 회활동에 대해서 협의 최용구회장 來日 제 4차조선학국제학술토론회와 본학회의 활동에 대해서 협의
12/7 12/14 12/21 12/26	東日本인문사회과학 제 1회연구회 개최 과학기술부회 제 2회연구회 개최 西日本지역 제 2회연구회 개최 국제고려학회 <회보>발행

알 림

1. 제 4차조선학국제학술토론회가 대판경법대의 아시아연구소와 북경대의 조선 문화연구소의 공동주최로 1992년 8월20~22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국제고려학회는 이 토론회장소를 빌려서 <제 2차 총회>를 개최 할예정이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2. 91년 8월 3일, 제 1차운영위원회의가 북경에서 열렸을때 앞으로 남북 KOREA 에 거주하는 학자들도 본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는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됨에 따라 평양과 서울에 각각 본학회의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하여 현재 추진중이다.
3. 본학회의 정치·법률부회 (위원장 길영환 IOWA주립대학 교수) 와 미국의 WASHINGTON D.C. 에 있는 GEORGE TOWN대학과 공동주최로 SYMPOSIUM 을 개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추진중이다.
시기 : 1992년 5월 또는 9월중
주제 : "RETHINKING AND KOREAN PENINSULA : ARMS CONTROL, NUCLEAR ISSUES, AND THE REFORMS "
(조선반도문제의 재검토 : 군비통제, 핵문제, 체개혁문제)
참가예정자 : 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미국의 학자, 관계전문가
4. 앞으로 회원들의 동정란을 마련하여 회원들의 최근에 발표된 논문이나 출판된 저서의 요지, 추천 또는 소개하고싶은 각 분야별 문헌, 자료에 대한 요지를 게재할 예정이다. 동봉하는 서식에 회원여러분들의 생각을 기탄없이 써서 본부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5. 제 2호부터는 지역별 연구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요지도 게재할 예정이니 이미 발표한 분들은 요지를 본부사무국으로 보내주시시오. 일본에 거주하는 회원은 동·서일본지역연구회에서 자기의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발표 해 주시길 바랍니다.

편 집 후 기

국제고려학회본부사무국 차장 양관수

세계사적 격동의 한해인 1991년이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는 때에, 국제고려학회의 회보창간호가 긴 産苦끝에 그 얼굴을 내놓게 되었다. 편집진이 11월경에 새롭게 구성되어 長苦難産끝에 첫아이의 産聲을 울리게 되었는데, 이 아기의 耳目口鼻가 제대로 생겼는지, 調和音이 잘 調律되어 있는지의 여부는 회원여러분의 사후평가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각 부회위원장의 활동구상증에서 누락된 부분과 <소장학자회의>의 부회별 평가증에서 이번에 실리지 못한 것은 다음호에 게재할 예정이다.

미주본부창립에 관한 문안은 미주본부에서 보내온 자료를 바탕으로 발췌 정리했으며, 아시아제 2분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담당총무들이 작성한 문안과 절충해서 정리했다. 북경서화세미나에 관한 부분은 본부사무국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정리했으며, KOREA학소장학자국제학술토론회의 총평은 북경사무국에서 보내온 문안과 절충해서 정리했다.

이 창간호를 읽어보는 회원들은 표기법의 혼재를 보고, 기나긴 민족분단의 슬픔과 함께 分斷現實의 냉엄한 現存을 다시한번 느낄 것이다. 한국식 북조선식, 중국조선족식, 재일동포식등 흩어져 살고있는 우리동포들의 제나라의 표기법이 그대로 표출되어 있어서 <비빔밥식 표기>로 되어 있다. 본 학회의 산파역인 오청달부회장이 <비빔밥식>을 선호하니까 이 회보도 각자의 맛을 마구 섞어서 맛있는 <오사카식비빔밥>으로 먹을 수 있게 되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하늘이 무너져도 금년중으로 내야한다>는 강박감때문에, 원고를 와프로 치고, 교정, 편집, 인쇄를 강행하느라고 김복화씨, 윤정옥(본학회사회부회총무), 배아등씨(본학회사무국성원)의 수고가 많았으며, 이 창간호가 탄생되기까지 협력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실로 감사드린다.

회보의 연내발간을 서두르는 중에 서울에서는 12월13일 제 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간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협의서>에 남북총리가 서명하므로써 분단46년, 7.4 남북공동성명후 20년만에 같은 민족간의 <반목, 대립, 단절>의 痛恨의 民族史를 <화해, 협력, 교류>를 통한 희망에 찬 통일역사를 만드는 民族史的 大章典이 선포되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쁜 소식이었다. 새해부터는 남북간에 다방면에 걸친 교류, 협력이 빠른 속도로 전개될 것을 믿기때문에 국제고려학회의 활동의 폭과 내용이 크게 넓어지고 풍부,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변화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있다.

국제고려학회 조직 및 임원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ISK>)

- 회장 최응구 (北京大學 敎수)
- 부회장 Mikhail N. PARK (Moscow大學 敎수)
- H.W. KANG (Hawaii大學 敎수)
- Helga PICTH (HUMBOLDT大學 敎수)
- 오창달 (大阪經濟法科大學 敎수)

- 본부사무국장 송양남 선수 (大阪經濟法科大學 敎수)
- 차장 김관성 (大阪經濟法科大學 敎수)
- 차장 김량오 (大阪經濟法科大學 敎수)
- 차장 백원종 (大阪經濟法科大學 敎수)
- 차장 강최영 (北京大學 敎수)
- 차장 최영리 (Central Michigan大學 敎수)

- 아시아제1지역본부 대표 안박찬 (北京大學 敎수)
- 부대표 한김진 (延邊大學 敎수)
- 총무 김영환 (北京大學 敎수)
- 총무 김영환 (北京大學 敎수)
- 아시아제2지역본부 대표 이대철 (早稻田大學 敎수)
- 총무 김철 (大阪經濟法科大學 敎수)
- 총무 김철 (大阪經濟法科大學 敎수)
- 미주지역본부 회장 헨길양 (Thomas Jefferson Univ. Hospital 敎수)
- 부회장 김희 (Iowa State Univ. 敎수)
- 부회장 김희 (Canada Toronto General Hospital 敎수)
- 부회장 김희 (Druxell 大學 敎수)

- 부회위원장 김희 (Univ. of Illinois 敎수)
- 위원 김희 (大阪外國語大學 敎수)
- 위원 김희 (中央民族大學 敎수)
- 위원 김희 (大阪經濟法科大學 敎수)
- 위원 김희 (延邊大學 敎수)
- 위원 김희 (大阪經濟法科大學 敎수)
- 위원 김희 (甲南大學 敎수)
- 위원 김희 (甲南大學 敎수)
- 위원 김희 (Iowa State Univ. 敎수)
- 위원 김희 (大阪經濟法科大學 敎수)
- 위원 김희 (關西大學 敎수)
- 위원 김희 (龍谷大學 敎수)
- 위원 김희 (大阪經濟法科大學 敎수)
- 위원 김희 (조선대학교 敎수)
- 위원 김희 (大阪經濟法科大學 敎수)
- 위원 김희 (中央敎育科學研究所 敎수)
- 위원 김희 (大阪經濟法科大學 敎수)
- 위원 김희 (Medical College of Virginia 敎수)
- 위원 김희 (英診療所 敎수)
- 위원 김희 (神戶朝日病院 敎수)
- 위원 김희 (共和病院 敎수)
- 위원 김희 (OIC 大阪情報 컴퓨터 專門學校 專門學部 敎수)
- 위원 김희 (大阪電氣通信大學 敎수)
- 위원 김희 (OIC 大阪情報 컴퓨터 專門學校 專門學部 敎수)

- 부회위원장 김희 (Univ. of Illinois 敎수)
- 위원 김희 (大阪外國語大學 敎수)
- 위원 김희 (中央民族大學 敎수)
- 위원 김희 (大阪經濟法科大學 敎수)
- 위원 김희 (延邊大學 敎수)
- 위원 김희 (大阪經濟法科大學 敎수)
- 위원 김희 (甲南大學 敎수)
- 위원 김희 (甲南大學 敎수)
- 위원 김희 (Iowa State Univ. 敎수)
- 위원 김희 (大阪經濟法科大學 敎수)
- 위원 김희 (關西大學 敎수)
- 위원 김희 (龍谷大學 敎수)
- 위원 김희 (大阪經濟法科大學 敎수)
- 위원 김희 (조선대학교 敎수)
- 위원 김희 (大阪經濟法科大學 敎수)
- 위원 김희 (中央敎育科學研究所 敎수)
- 위원 김희 (大阪經濟法科大學 敎수)
- 위원 김희 (Medical College of Virginia 敎수)
- 위원 김희 (英診療所 敎수)
- 위원 김희 (神戶朝日病院 敎수)
- 위원 김희 (共和病院 敎수)
- 위원 김희 (OIC 大阪情報 컴퓨터 專門學校 專門學部 敎수)
- 위원 김희 (大阪電氣通信大學 敎수)
- 위원 김희 (OIC 大阪情報 컴퓨터 專門學校 專門學部 敎수)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ISKS)
國際高麗學會

發行人 宋南先
編集人 梁官洙
發行所 國際高麗學會本部事務局
發行日 1991年12月26日

日本国大阪府八尾市楽音寺6丁目10番地
大阪経済法科大学内

Osaka University of Economics & Law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6-10 Gakuonji, Yao, Osaka, 581 Japan
TEL 0729(41)8211 EX. 432, 434
FAX 0729(41)4665